

회원사 소식

(주)정다운 이영 대표 모범납세자 대통령상 수상



종합오리전문기업 (주)정다운(대표 이영)은 3월 5일 제4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 받았다. 이영 대표는 “기업이 기본과 원칙을 중요시하고 항상 사회적 책임을 먼저 생각하며 경영할 때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지역 사회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주)정다운은 2006년에도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았으며, 2011년도에는 ‘2,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 받은 바 있다. 2000년 오리털 가공사업으로 시작해 현재는 오리 육가공사업에까지 진출한 (주)정다운

(www.jungdown.co.kr)은 부화장을 비롯해 사육농장, 도압장, 육가공장, 우모공장, 식품연구소, 냉동공장, 유통물류센터 등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수직계열화사업을 통해 양질의 원료공급과 수준높은 가공역량, 안정적인 판매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주)정다운은 마스크 중 국민들에게 노출도가 가장 높은 TV에 영상광고를 진행하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료 : 정다운



월간 오리마을에서 회원 여러분의 새 소식을 기다립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회사 및 농장의 소식을 오리마을지에 실어주세요.

- ▶ 원고 송부기한 : 매월 20일(업계 및 회원사 소식 한함)
- ▶ 원고 분량 : A4 반페이지(11pt 기준), 사진 1매
- ▶ 원고 형식 : 한글파일(hwp), 또는 워드파일(wod)
- ▶ 원고 제출 처 : 메일(kda5252@naver.com)또는 웹하드(ID : kdLucka / PW : kda5288)

※ 오리마을의 업계 및 회원사 소식은 회원사 홈페이지를 참고로 게재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 소식

한국원종오리 국내생산 종오리 첫 분양 오리산업 활력 기대

(유)한국원종오리가 지난 3월 17일 처음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종오리를 분양해 오리 생산비 절감에 신호탄을 올렸다. 한국원종오리에 따르면 2010년 7월 1일과 15일에 입식한 프랑스 그리드사의 원종오리(GPS)에서 생산된 종오리(PS) 7500마리를 지난 3월 17일 (주)모란식품으로 출하했다. 한국원종오리는 한국오리협회 산하 회원사들의 출자로 2008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종자오리 회사로 이번에 최초로 종오리를 분양함으로써 기존에 종오리 병아리 입식에 들어가던 비용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고 종오리 수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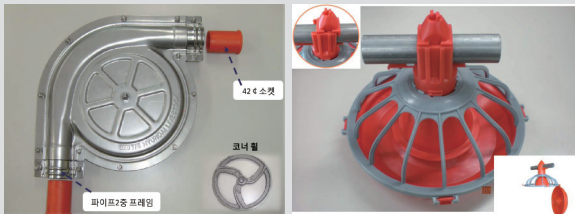
소요되던 시간과 검역을 받지 않고도 종오리를 입식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그동안 종오리 수출국에서 살모넬라나 고병원성 시, 자연재해 등으로 수출이 곤란할 경우 국내 오리산업도 함께 영향을 받았으나 이번에 종오리를 국내에서 생산·공급하게 됨으로써 안정적인 종오리 수급은 물론 농가에선 검역 절차의 번거로움 없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건강한 종오리를 입식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한국원종오리는 올해 총 46만3450마리의 종오리를 생산·분양할 계획이다.

자료 : 농수축산신문

T/S 현대축산 신제품 출시



축산기자재 전문생산업체 T/S 현대축산이 신제품을 출시했다.

먼저, 스텐코너로라는 일반코너로라와 같은 부품사용으로 별도의 공구가 필요없으며, 기존 스텐코너로라의 문제점인

파이프 합입부에 주름을 2번 주어 파이프가 코너 내부로 밀려들어가는 현상이 없고, 코너 내 중심부로 사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활살이 휘어 있어 사료정체현상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파이프 연결부에 소켓을 사용하면 48㉔ 코너를 42㉔ 코너로도 활용할 수 있다. 2중 베어링 구조로 회전도 원활하여 부하를 최소화 한것도 장점이다.

또 다른 신제품은 육계 평사용 사료통이다. 기존제품들의 문제점인 캠퍼슨, 파이프와 셔터의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해결하였다는 것이 장점이며 철밴드가 필요없고, 고정식으로 견고하며 완전 조립식으로 별도의 공구가 필요 없으며, 분해와 조립이 간편하여 농장자체에서 시설,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료 : TS현대축산

월간 오리마을에서는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관련 업계소식 및 동향을 전하고 있습니다. 월간 오리마을 발전을 위해 성원해주시는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 ▶ 원고 송부기한: 매월 20일
- ▶ 원고 제출 처: 메일(kda@naver.com)또는 웹하드(ID: kducka/ PW:kda5288)